밝힘과 흐릿함의 오묘한 역설

(열왕기상 11:26~43)

30.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31.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고
32.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34.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35.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36.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밝힘과 흐릿함의 오묘한 역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밝힘과 흐릿함의 오묘한 역설'
사전에서 '밝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빛을 내는 물건에 불을 켜는 것이 밝히는 것인데 등불 횃불 등을 밝히는 의미에서 쓰는 말입니다. 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새우는 뜻이 있고, 눈이나 신경 및 두뇌의 작용을 곤두세워서 날카롭게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는 '드러나게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돈과 지위를 밝히다, 먹을 것을 밝히다, 놀음을 밝히더니 집까지 날렸다 등과 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진리 가치 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드러내어 알리는 뜻도 있는데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사건의 전모나 사리를 밝히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드러나게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앞세우고 보면 나머지 것에도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밝힌다.'라는 말을 보면 빛을 내는 물건에 불을 켜는 것으로 등불을 밝히고

횃불을 밝히는 것인데, 돈이 내 마음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대상을 드러내 놓고 좋아하게 됩니다. 돈을 밝히는 것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고 마음에서 등불과 횃불이 켜지듯이 돈이 불을 켜고 내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밝히는 말도 돈을 바라보고 있고 돈이 마음에서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 꺼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위를 밝히는 사람은 언제나 의식의 내면에서는 항상 승진 지위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지위가 보이기 때문에 친구의 아버지와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연관성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더 잘하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밝히는 것은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에 불이 꺼지지 않고 또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죽지 않음을 뜻합니다. 눈이나 신경이나 두뇌의 작용을 날카롭게 하는 뜻은 돈을 밝힐 경우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 돈을 떼먹는 놈은 못 참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지만 돈 가진 사람은 존경합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나게 좋아하는 말을 앞세울 때에 줄줄이 엮여서 연관성을 가지고 뒤따라오는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가치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밝히면 돈의 조명을 따라서 사물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게 돈이 들어오는 일이면 좋은 일이고, 금전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연봉을 많이 받는 스펙을 가질 수 있도록 길러 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이 내가 특별히 드러내서 좋아하는 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돈을 밝히고 놀음을 밝힌다고 할 때의 '밝힌다.'라는 단어가 항상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용례를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맞는데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실제 방식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를 밝히며 좋아하며 살아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빛을 발하고 있으니 빛이 보이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어두움 가운데 풍랑을 만나면 등대의 빛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것이 추구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소원하는 것이며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며 이것이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하는데 곧 하나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밝히고 건강을 밝히고 지위를 밝히고 여자를 밝히는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특별히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만이 빛을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밝힌다.'라는 말의 뜻이어서 꼭 부정적인 뉘앙스만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상응하는 일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찜찜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일

천 아내는 결국 여자를 밝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초기의 기도는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물질을 밝히지 않았고 무병장수를 밝히지 않았고 원수를 물리치는 형통을 밝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밝혔는데, 말년에 일천 아내가 뜻하는 바대로 여자를 밝히 보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밝히면 반드시 흐릿함이 수반되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누군가에게 조명을 보내면 다른 사람들은 흐릿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밝히면 자녀가 어떻게 크는지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흐릿함 속에 가려져버리고 맙니다.
이상한 것은 무엇을 밝혔기 때문에 한쪽 면에서는 흐릿함이 나타나는데 이 흐릿함 속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흐리멍덩하다'는 말은 어리석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명철은 밝을 명(明)에 밝을 철(哲)자를 씁니다. 그러나 흐릿함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참 묘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밝히 안다고 생각하는 유명한 지식인들을 다 만나보고 내린 결론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밝은 줄 알지만) 나는 어떤 면에서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나는 어둠 속에 있음을 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음을 밝히 본 소크라테스를 최고의 지혜자로 꼽습니다.
노자는 "도를 따르는 삶이 무위자연의 삶이요 참 지혜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를 표하는 색으로 한자의 검을 현(玄)자를 쓰는데 왜 검음 속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도 노자도 석가모니도 철학도 변죽만 울릴 뿐입니다. 성경만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타락 전에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므로 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었고, 건강이나 지위도 명품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필요하고 직장에 나가면 내 위에도 밑에도 사람이 있으므로 대해야만 합니다. 명품이든 아니든 핸드백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것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지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밝음이 없고 흐릿합니다.
돈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돈을 만져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백은 들어야 하는데 이게 좋은지 저게 나쁜지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부장이나 과장이나 상무가 있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밝힘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밝히는 사람이 자나 깨나 돈 돈 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사람은 자나 깨나 하나님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나 깨나 밝히며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단 하나의 행동이나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밝히 보기 위하여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내 마음에서 밝히 보이는 상태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말년에 일천 아내의 밝힘증으로 인해 하나님이 어둠 속에 밀려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로보암의 이야기나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떼어서 북 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절은 번역을 잘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라고 하는데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너는 네 마음이 그동안 욕망했던 대로 군림하여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데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부심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자 자부심과 불만이 합쳐지자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그동안 욕망해오던 왕위가 밝혀지게 됩니다. 한 마디로 요즘 말하는 비전으로 왕이 될 것을 밝히 보고 있었는데, 바라던 대로 왕이 될 것이라는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표면화 시켰다가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쳐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야 돌아와서 열 지파를 떼어내어 북 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비전은 마음에서 밝히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을 마음이 밝히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둠 속으로 묻혀버리십니다. 왕위에 대해서 밝으면 밝을수록 돈에 대해서 밝으면 밝을수록 다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리고 하나님을 밝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둠으로 몰아냅니다. 왕위를 밝히 보고 돈을 밝히 보고 지위를 밝히 보면서 밝아지는데, 돈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고 왕위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내 생각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혼란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을 다루는 본문 열왕기상 11장은 기가 막히는 건축구조처럼 짜여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밝혔을 때에 세상 모든 것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대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보니 에돔 사람 하닷과 아람 사람 르손으로 상징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천 번제로 하나님을 밝히지 못하고 일천 아내로 여자를 밝히게 되자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하닷과 르손으로 상징되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여로보

암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자 밝힘증이 있었다면 여로보암은 왕위 밝힘증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신 상황에서 여자 천 명을 관계하고 있었으니 여자에 대해서 가장 해박했던 솔로몬이 여자로 인해서 가장 어리석은 상태로 그모스 우상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는 상태로 빠져 들어갑니다. 세상의 것을 밝히면 밝힐수록 똑똑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리석음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밝히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는 흐리멍덩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사람이 일단 한 발자국을 뗄 때에 그것이 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선민 이스라엘에 그동안 억제되어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댐이 무너지면서 쏟아져 들어오는 통로를 상징합니다. 북 왕국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200여년 후에는 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남 왕국 유다에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가 지속되다가 BC586년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밝혀야 합니다. 돈 밝히고 자녀의 성공 밝히고 승진을 밝히고 건강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돈이나 성공을 밝히고 희망을 주겠다고 하며 가난을 죄로 설교하는데 이것이야 말로 교회 안에서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인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세상 것을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갈3: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면 세상에 대해서는 흐리멍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상이 밝아질 수 없고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 같지만 움직이는 걸음마다 지혜가 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밝음은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길로 내 마음을 끌어가시는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밝히는 것이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돈을 압니까? 승진을 압니까? 어느 직장이 좋은 것을 압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를 압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든지 취직을 할 때에 지혜의

결혼이 되고 지혜의 취직자리가 될 것이고, 돈을 쓰거나 벌어도 지혜로 벌거나 지혜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밝으면 밝을수록 밝혀서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 속으로 통째로 들어가게 되고 어둠과 흑암이 통째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세상에서 잃을 것에 대한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였고 선민 전체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쓰나미 속으로 파묻히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비전을 가지고 밝히는 것이 있는 한 점점 더 어리석음은 강화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겹겹이 쌓여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밝힘으로 세상에 대해 어리석고 흐릿해질 때에 이 세상을 향한 참 지혜가 내 입과 사지백체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일천 번제를 생활화함으로 세상에 대한 흐릿함 속에 오직 지혜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